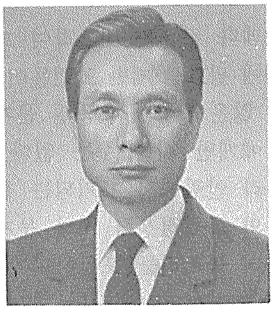

"대중사우나"

최종인 / 본회 비상근 이사
두산전자(주) 사장

내가 자주 뵙고 있는 친척분중의 한분은 고급 공무원을 지내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옛날의 그런 저런 인연으로 해서 日本人 知人들과 아직도 교분을 유지하고 계신다. 한번은 이 분을 만나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로 고개가 끄떡여지는 얘기를 한가지 듣게 되었다. 얘기인즉슨 어느날 日本人 친구 하나가 한국에 들린 김에 GOLF 초대를 했었단다. 운동이 끝나고 목욕도 다 한뒤에 맥주를 한잔 하면서 그 日本人 손님이 그러더라는 것이다. 自己는 親韓派이면서 또 한국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知韓派中의 한 사람인데 '80년대 중반 한국을 드나들면서 느끼곤 했던 한국사람, 사회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 심지어는 두려움 비슷한 감정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이더란다. 그러면서 조금전 목욕탕에서 뭐 느낀 것이 없었느냐고 묻길래 글쎄요 하고 고개를 갸웃뚱거리더니 그 日本人 얘기가 GOLF를 하러 나올 정도면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는 상류층에 속해야 할테고 따라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내에서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지도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어째서 간단한 목욕 질서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느냐고 사뭇 진지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이다. 쓰고난 타월은 그냥 備置되어 있는 통에 던져 넣어버리면 될터인데도 아무렇게나 마루바닥에 내팽개치면 종업원이 그것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치우니 정말 문제가 아니냐고 하더란다.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현장에 나가서 근로자들에게는 물건 제대로 놓기, 공구 제자리 갖다 놓기 등 이런 저런 일들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였단다. 그런 사장 밑에서 또는 그러는 공장장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만드는 제품이 어떤가는 뻔할 것 아니겠느냐고 탄식을 하더란다.

친척 아저씨의 얘길 듣고는 생각나는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즈음은 아파트다, 온수 보일러다해서 집에서 목욕을 하고 공중목욕탕에 갈 기회가 없을텐데 나는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번이고 또 어쩌다가는 두주일에 한번 꼴로는 이천원을 내고 "대중 싸우나"를 찾곤 한다. 역시 최근에 가본 이는 알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 욕탕 곳곳에 내팽개쳐진 수건이며 일회용 칫솔 또 그뿐이랴 어쩌다 밟기라도 하면 큰일 날 일회용 면도기까지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 저절로 이맛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담을 것들이 없으면 혹 모르겠거니와 버젓이 쓰레기통을 옆에 놓고도 쓰고난 칫솔들을 아무렇게나 놔둘 일이 무어란 말인가? 옛날엔 목욕을 간다면 수건이다 비누다해서 전부 챙겨들고 가서 쓰고난 후 가져 오곤 했으나 요즘엔 모든게 흔해지고 편해져서 돈 이천원만 내고 목욕탕엘 들어 가면 수건이고 뭐고 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편해진 것만해도 어딘데 왜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해서 서로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한번은 하도 딱해 종업원에게 이런 기분을 얘기하니 어떤 손님중엔 수건을 대여섯개씩이나 마구잡이로 쓰고도 돈내고 내마음대로